

◎ 을미의병

: 을미사변과 ()에 반발하여 처음으로 일제 대항하여 일어난 의병

- 지방 ()들과 농민 중심

- 단발령이 취소되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한 뒤 해산 명령을 내리자 () 해산함

◎ 러일전쟁

: 대한 제국은 ()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의 간섭을 더 많이 받게 됨



◎ 을사늑약

: 고종이 거부했음에도 일제의 특사 ()는 궁궐을 포위한 상태로 ()을 빼앗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함
→ ()

"나는 죽음으로서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려 하노라. ... 대한 제국 2천만 동포에게 죽음을 고하노라"
- ()



◎ 을사의병

-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전국에서 의병이 다시 일어남. 을사늑약의 ()를 요구하며 격렬하게 무장 투쟁함

- ()과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도 등장
: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일본군을 무찔러 ()별명을 얻기도 함

◎ 헤이그 특사 파견

: 고종은 을사늑약이 ()임을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고종의 강제 퇴위

: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대한 제국 ()도 해산함

◎ 정미의병

- 결성: 해산된 ()들 일부가 의병에 참여. 의병의 힘이 커지자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 전국 의병들의 힘을 합치고자 함. 그 결과 이인영과 허위 중심의 의병 연합군, ()이 만들어짐.

- 분열: ()이 아버지 사망 소식에 고향으로 돌아감. 양반 유생인 의병 지도자들이 () 출신 의병장들을 제외하여 내부 분열 초래. 서울을 향해 싸우러 나아가는 ()작전이 실패함

- 의의: 전국의 의병 부대가 처음으로 () 일제에 대항한 사건. 살아남은 의병들이 ()나 ()로 이동해 항일 투쟁을 이어나감

"우린 어차피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가 되어 사느니, ()으로 싸우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메켄지



◎ 윤희순

- 의병가 여덟 편, 경고문을 네 편 지어 의병을 밀고한 자, 의병과 싸우던 관군과 일본군에게 경고함. 이후 ()으로 망명하여 항일 운동을 전개함.